

치 사

지난 5년 동안 우리 종단은 물론 한국불교 포교에 헌신하신 혜총스님의 큰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모든 종도들이 진중한 원력과 실천을 보았기에 이렇게 퇴임하는 자리는 참으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퇴임하신 후에도 큰 원력을 널리 펼쳐주시기를 종도를 대신해서 간곡히 청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불교의 명맥이 끊어질 것이기에 포교는 불교와 교단을 유지하는 근본이며,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통해 우리들에게 부촉하신 근본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단은 출범 당시부터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단의 3대 사업 가운데 으뜸으로 포교를 배치함으로써 그 지향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포교사업의 집중과 안정성을 위해 포교원이 별원이 된 16년 동안, 포교원은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며 포교의 영역을 확대하고 신기원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포교원의 성과는 출재가를 막론한 사부대중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혜총스님께서는 지난 2006년 11월 제 5대 포교원장으로 취임하여 종단 포교의 성숙과 재도약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어린이·청소년 포교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0여곳의 사찰이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한 거점사찰로 활동하면서, 전에 없던 다양한 포교 자료를 제작하여, 미래의 희망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청소년 법요집과 법회 교재는 물론 IT 시대에 조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위원회의 설치로 포교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 할 수 있는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의 교육과 조직분야도 새롭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멤버십 기능을 담은 새로운 신도증을 발급함으로써 그동안 부진한 상황에 머물러 있던 신도등록의 활성화를 이루는 한편 신도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신도 품계제도를 실시하여 조계종 신도의 조직력을 훨씬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각 포교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교결집대회를 개최하여 1만여 명에 이르는 활동가들이 포교에 대한 의지를 한데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각 지역과 분야별로 전법단을 구성하기 시작하여 분야별 포교와 지역 포교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혜총스님께서 지난 5년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결과이며 동시에 종단 포교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경험을 발휘하신 덕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교 활성화라는 종단의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행이 없다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계획없이 실천에 뛰어들었다면 수많은 시행착오에 난항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교는 장단기적인 계획 즉, 포교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교는 세간이라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교 활성화는 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간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포교정책을 세워 추진할 때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단의 포교를 책임지는 포교원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울러 종단 차원에서도 포교 일선에 나서는 분들을 더욱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포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중요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단의 정책입니다. 포교에 헌신하는 스님들과 신도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포교원이 올바른 포교정책을 세우고, 종단이 포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때 비로소 포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렇게 종단의 제도적 기반 아래 포교 정책을 조화롭게 수립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실천하자는 의지를 되새기는 것 또한 혜총스님의 큰 공적이라 할 것입니다. 스님의 공적이 포교원을 넘어 종단의 건실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기에 아쉬움과 더불어 아름다운 회향에 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2011)년 11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